당정, 미세먼지 예산 1조원 이상 확대

기존 R&D시스템 한계 도달… 혁신필요 공감
각종 예산 확대 · 연구환경 개선 등 적극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기여 기대… 과기장관회의도 부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내년부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R&D(알앤디·연구개발) 시스템혁신을 통한 국가 전반의 혁신역량 고도화를 추진한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김영진·진선미 의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알앤디 혁신방안에 관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관리중심의 R&D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과학기술의 성과가 신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혁신생태계 전반을 고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들은 우선 건강·안전·환경·복지 등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당정은 특히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예산의 경우 올해 744억원을 내년에는 45% 늘린 1083억원으고, 환경 예산은 올해 232억원을 116% 증가한 501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제 발굴부터 실증 및 평가까지 R&D 전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당정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신산업 분야 및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신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연구장비산업 육성과 실험실 창업 등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연구관리 전문가와 대학 등의 전문연구원, 장비운영 테크니션 등 과학기술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인 R&D와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도전적인 R&D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종전보다 2배 확대해 2017년 기준 1.2조원인 연구비를 2022년까지 2.5조원 규모로 늘린다. 노화극복과 기후조절 등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연구에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혁신형 R&D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과정도 해당 연구 특성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 당정은 지방정부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R&D혁신역량 기반을 다지도록 지원하고 정부출연연구소와 공공연구소 지원, 기존 R&D 시스템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R&D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고 실무조정회의도 함께 설치키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 R&D 예산이 20조에 달하는데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운영된다는 지적과 비판이 많았다"며 "R&D 예산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의 성과 반드시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투자비율은 세계 1·2위 수준이나 우수학술지 논문 수 및 인용건수, 알앤디 투자대비 기술 수출 비중 등 성과는 미흡한 현실"이라며 "당정은 알앤디가 연구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사람중심의 알앤디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국가 알앤디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5년 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제고 도모하겠다"며 "과기부는 IT혁신 방안 관련 기관을 비롯한 연구현장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해관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 국회에서도 혁신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입법 등에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다문화가정 안정적 일자리 창출 돕고파'

덕진구, 외국문화전도사 사업 간담회

전주시 덕진구는 26일 구청 회의실에서 결혼이주여성 및 지역아동센터장 34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외국문화전도사 지원사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018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외국문화전도사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사업 안내, 임무,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했다.

외국문화전도사 지원사업은 전주시가 중국, 일본, 필리핀, 라오스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외국어 습득과 외국의 문화 이해를 통해 글로벌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총 4개월간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되어 하루 3시간 주 5회에 걸쳐 자국의 언어·문화를 가르치는 외국문화전도사로 활동하게 된다.

김기평 덕진구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국을 알리는 문화전도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여 아이들 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 "일자리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경제적 소득창출도 기대된다. 사람 중심의 전주답게 상생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맞춤형 교육으로 공간정보시스템 활용도 높인다

전주시, 신규공무원 등 직원들 대상 사용법 · 보안교육 실시

전주시는 26일 전주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법 및 보안교육을 실시했다.

공간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지적도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조회, 건축물대장 등을 포함한 부동산·도로·건축물 등의 데이터와 위치정보를 결합해 시각화하여 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 1월에 발령받은 신규공무원과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은 업무 담당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간정보 시스템 사용법 △정사영상 활용방법 등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전반에 관한 교육과 △공간정보 보안교육 등이다.

특히, 시는 지적민원과 재산관리, 도시건축, 산림·농지관리 등 각종 인·허가 부서를 중심으로 전주시 전체공무원의 59%가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 중인 만큼 이번 교육이 민원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엽 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업무담당자들이 공간정보기술을 익혀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새로운 공간정보 기반의 사업이 창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동창 둔기로 집단폭행 경찰, 조폭 등 3명 추적

조폭 등 3명이 둔기로 동창생을 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6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한 도로에서 조폭 A(23)씨 등 3명이 고등학교 동창인 B(23)씨 등 2명을 야구방망이로 10여 차례 때린 뒤 도주했다.

경찰은 "남성 여러 명이 둔기를 들고 사람을 때리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 등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현재 B씨 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경찰에서 "후배들 관리 문제로 A씨 등과 전화로 다퉜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길래 나갔는데 만나자마자 야구방망이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들의 뒤를 쫓고 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26일 500여명의 시민들이 전주시청 강당을 메운 가운데 제177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열렸다.

'음식은 생명이다, 자연을 담은 건강한 제철음식으로'

전주시, 선재 스님 초청 열린시민 강좌 열어

26일 500여명의 시민들이 전주시청 강당을 메운 가운데 제177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열렸다.

이번 초청강의에는 국내·외 4000여회에 걸친 강연을 통해 사찰음식 대중화와 어린이 음식교육에 힘써온 사찰음식의 명장, 선재(善材)스님(보리사 승려,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을 초청,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선재스님은 이 자리에서 "내가 행복하려면 건강한 몸과 맑은 영혼이 필요하고 그것은 맑고 건강한 음식이 토대가 되며 맑고 건강한 음식은 모든 자연계가 맑고 건강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며 "곧 모든 자연계는 나와 같이 '공생공존'한다"고 불교의 우주론적 관점에서 자연과 음식, 생명과 인간을 연관 지어 사찰음식을 설명했다.

이어, "계절에 따라 병이 나니 계절에 따라 음식을 취해서 먹으면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다"며, △자연·생체리듬에 맞추어 먹기 △발우공양(음식을 먹는법) △오관계(공양 전 외는 게송) 등 불교경전을 바탕으로 사찰음식의 철학과 정신을 체계적으로 풀어내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명무디딤 동호회의 한국무용 공연이 있었고 강좌 후 토크 시간에는 강사와 수강생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재열 시 교육청소년과장은 "매달 새로운 주제로 열린시민강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가 되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작가와 강사님들을 모셔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실무능력 'UP'

위원 위촉 · 위원장 선출
의견 수렴 · 역할과기능 교육

전주시는 26일 시 도시혁신센터에서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 장김승수 시장, 민간위원장 백종만 전북대학교 교수) 위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체 역할과 기능'에 관한 교육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의견 수렴 및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새롭게 구성된 실무협의체 위원 27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도 선출했다.

이와 관련, 이번 7기 협의체부터는 기존 복지·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새롭게 주거와 정신건강 및 중독관련 단체를 영입해 기능이 확대됐다.

또, 당연직으로는 사회복지와 주거관련 부서, 보건소, 경찰서의 실무팀장을 위원으로 총 27명이 실무협의체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실무협의체는 중요한 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심의 안건 사전 검토, 시책개발 협의 및 제안서 마련, 현안과제 및 실무분과 공동사업 검토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